Revista Iberoamericana 21.2 (2010): 25-55.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등장배경과 변천과정: 국민국가형성부터 현재까지*

김 달 관
단독/서울대학교

Kim, Dal Kwan (2010), La génesis y el proceso de cambios del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o: desde la formación del Estado nacional hasta el presente.

Abstract El levantamiento indígena ecuatoriano ha sucedido en 1990, 1992, 1994, 1997, 1999, 2001, 2003 respectivamente. Se aconteció este levantamiento indígena en la situación complicada, en especial el levantamiento indígena de 1990 y 1994 que fue el primer levantamiento indígena en Ecuador se mostró el hito histórico entre el pasado colonial y el establecimiento de la República. Se considera que en America Latina el primer levantamiento indígena es la ocupación de San Cristóbal de las Casas por los zapatistas mexicanos en 1994. Pero el levantamiento indígena en Ecuador ya se aconteció en junio de 1990. Éste se tiene gran sentido no sólo en la historia ecuatoriana, sino también en la historia latinoamericana en la perspectiva de opciones decoloniales que se supere las colonialidades que provienen desde la época colonial. El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o ha sido un largo proceso que se estaba cambiando de la sociedad comunal hacia el Estado nacional.
Por ello, ¿este artículo va a investigar porqué sucedió el levantamiento indígena desde los años 1990 hasta ahora en Ecuador? Con este objetivo, este artículo es compuesto con los 5 capítulos. En el 2 capítulo se trata de la génesis del movimiento indígena en Ecuador y en el 3 capítulo el proceso de cambios del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o. En el 4 capítulo se analiza los factores de la emergencia del movimiento indígena después de la introducción de neoliberalismo. En el último capítulo es la conclusión.

Key words Ecuador, Movimiento Indígena, Movimiento Social, Plurinacionalidad, Identidad Indígena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 사회운동, 다국민성, 원주민 정체성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이 논문 준비과정에 중요한 의견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I. 서 론

1. 문제 제기

에콰도르에서 원주민 봉기는 1990, 1992, 1994, 1997, 1999, 2001, 2003년에 각각 발생했다. 에콰도르 원주민 봉기는 1981년부터 경제위기가 점증하기 시작했고, 정치적으로 불안정성이 증가하던 시기에 발생했다. 게다가 1997 · 2000 · 2005년에는 임기 중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강제로 물러나야만 했다. 이러한 에콰도르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원주민 봉기인 1990년과 1994년 원주민 봉기는 식민의 과거와 공화제 구축 사이의 역사적 분기점을 보여주었다(Guerrero 2000, 50). 라틴아메리카에서 첫 번째 원주민 봉기의 시초를 1994년 멕시코의 사파티스타에 의한 산크리토발 데 라스 까사스(San Cristóbal de las Casas) 점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에콰도르에서는 1990년 6월 원주민 봉기가 발생했고, 이것은 에콰도르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관점에서도 식민 시대부터 내려오던 식민성을 타파하려는 탈식민적(Decolonial)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현지 인터뷰, 루이스, 기예르모, 오르티스).[1]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은 원주민 사회(Sociedad Comunal)에서 국민국가(Estado Nacional)로 변모하는 긴 과정이었다.[2]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은 전국적 수준의 원주민 조직을 1986년에 창설

1) 에콰도르 원주민 조직의 지도부와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인종주의에 기초한 지배 · 억압체제가 식민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에콰도르에서 원주민 운동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에콰도르에서 인종주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원주민을 지배하는 중요한 지배 장치라는 것이다.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에서 농민이라는 계급적 관점이 모든 원주민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종족에 대한 정체성이 등장하게 되었다. 종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다국민국가(Estado Plurinacional) 요구로 이어졌다.

2)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은 국민국가 중에서도 특히 '다국민국가(Estado Plurinacional)'를 지향했고, 2008년 헌법에서 다국민국가를 성취했다. 에콰도르의 국민국가에서 국민은 백인-혼혈인이었다. 그러나 에콰도르에는 14개 종족으로 이루어진 원주민이 존재하고 흑인후손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다국민국가는 백인-혼혈인뿐만 아니라, 원주민과 흑인도 에콰도르의 국민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주민의 경우 그들의 고유한 언어, 문화, 토지, 영토, 역사, 전통 등을

했고 1980년대 말에 다국민국가(Estado Plurinacional)를 주창하기 시작했다. 이후 강력한 조직력과 동원력에 기초하여 1998년 헌법을 거쳐 2008년 헌법에 다국민국가를 인정받았다. 이에 본 연구는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이 왜 발생했으며, 어떻게 변천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에콰도르에서 원주민 인구 비율은 자료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에콰도르 총 인구에서 15~3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구센서스가 아닌 원주민 정체성 연구에 의하면, 에콰도르 총인구에서 원주민이라고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원주민 조건에 맞는 원주민 인구는 80~85만 명 정도이다.[3] 따라서 정체성에 따른 원주민 비율은 총인구 1480만 명(2010년)을 기준으로 약 17%이다. 본 연구는 원주민을 인구센서스와 정체성 개념을 합친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원주민 비중을 15~17%정도로 이해하고자 한다. 1995년을 기준으로 에콰도르 총인구의 56%가 빈곤층이며, 그 중에서 상당수가 원주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은 농민이라는 계급적 관점과 함께 원주민의 종족정체성 관점이 등장하면서 더욱 발전했다

2. 연구방향과 관점들

원주민 운동 이해를 위한 중요한 사회운동 이론으로는 집단행동론, 자원동원론, 정체성 지향 패러다임, 합리성 이론, 막시스트 이론 등이 있다. 사회운동에 관한 2개의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자원동원론(Teoría de la

인정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국민성(Plurinacionalidad)은 원주민과 흑인이 백인-혼혈인과 수세기를 함께 공존했던 사실과 혼혈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현실과 특징을 반영한다. 따라서 백인-혼혈인과 원주민 · 흑인 사이에 동등한 상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동일한 공간에서 문화들의 공존을 의미한다. 반면 다국민성(Multinacionaldad)은 관계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상대성을 의미하고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정의 지속을 감춘다. 이것은 시장 안에서 참여를 의미하는 신자유주의 모델 안에서 '포함'을 강조하며 초국가적 정치를 지향한다. 따라서 이것은 지배적인 문화의 틀에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특정한 문화들의 집단을 의미한다(Walsh 2008, 140).

3) 원주민 조건이란 원주민 언어를 말할 줄 알고, 원주민 모자를 쓰며, 남자는 짧은 바지를 입고, 여자는 원주민 고유의 검은색 치마를 입는 것을 말한다.

Movilización de Recursos: TMR)' 으로서 미국에서 출현했고 집단행동론과 주요한 관점을 공유하지만, 특히 TMR은 비용-수익에 기초하여 정치체제에서 권력, 자원을 위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집단의 합리적 행위로서 집단행동을 분석하는 것이다(Hoetmer 2008, 110). 사회운동에 관한 다른 전통은 '정체성 지향 패러다임(Paradigma Orientado a la Identidad: POI)' 이다. POI 전통은 사회변화를 지향하면서 대안적인 정체성 구축을 강조한다. 특히 POI는 집단행동과 운동참여의 새로운 주체성 출현과 일상적 삶의 정치화를 추구한다(Hoetmer 2008, 111). 본 연구는 호에트메르(Raphael Hoetmer)의 사회운동 개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그는 사회운동을 "사회적, 정치적 참여나 자원으로 기능하는 사회단체 소통의 흐름 또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에 사회운동은 다양한 사회행위자 간의 상호행위의 표현이자, 동시에 동원과 단식투쟁, 공적 논쟁의 개입, 지식의 생산,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사회행위자들 사이의 갈등과 협상까지도 포함하는 표현들의 다양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에콰도르 원주민은 페루와 볼리비아처럼 원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지도 않고, 게다가 페루와 볼리비아처럼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과거를 갖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은 국가, 조직, 계급, 백인-혼혈인 사회와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페루와 볼리비아와 차이가 있다(Sanchez-Parga 2007, 13-17). 국가의 관점에서 차이점은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역사는 항상 국민국가와 관련이 있고 국가발전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이 있어왔다. 조직 측면에서 차이점은 볼리비아, 페루와 달리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은 내부의 지역적 범위에서 다양한 변화(종족, 문화, 경제, 정치)와 다양한 수준에서 변화(종족 간, 종족 내부에서)가 동시에 발생했다. 원주민 운동의 강력한 수단인 조직이 '밑으로부터(Desde Abajo)' 운동이 '위로부터(Desde Arriba)' 운동으로 변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계급 측면에서 차이점은 종족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회집단의 원주민에 대한 재평가뿐만 아니라, 원주민 운동의 저항에서도 종족과 계급의 조합가능성을 원주민 운동에

제공했다. 백인-혼혈인 사회와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은 에콰도르 경우에 원주민은 '농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농민'은 '원주민'의 동의어라는 차이를 보여준다.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에서 원주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원주민적(Indigenista), 종족주의적(Etnicista), 계급적(Clasista) 3가지가 있다(Porras 2005, 49-50). 원주민적 관점은 19세기말 식민 질서가 무너지면서 아메리카에서 자본주의 확대와 함께 등장했다. 원주민적 관점은 서구 자본주의와 비교할 때, 원주민 사회의 뒤쳐진 특징을 강조하고, 기본적인 전략으로서 원주민을 자본주의 체제와 통합을 제안한다. 종족주의 관점은 1960 · 70년대부터 원주민 조직에서 출현했다. 종족주의는 문화적 차이를 회복하고 종족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련의 집단적 권리를 요구한다. 계급적 관점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 상황은 자본주의적 착취관계에서 결정되는 계급적 사회구조에 편입된 결과라는 관점이다.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선행연구로는 뽀라스(Angélica Porras 2005)의 『원주민의 시간: 에콰도르 운동에서 집단적인 정치적 정체성의 구축』이 있고, 게레로와 오스삐나(Fernando Guerrero y Pablo Ospina 2003)의 『공동체의 권력: 안데스 원주민의 원주민 운동과 구조조정』있으며, 바레라(Augusto Barrera 2001)의 『집단행동과 정치적 위기: 1990년대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이 있다. 국내에서 원주민 운동에 관한 연구는 김은중(2008)의 "권력의 식민성과 볼리비아 원주민 사회운동"이 있으며, 김기현(2007)의 "원주민 인권과 종족성의 정치: 볼리비아 사례를 중심으로"가 있다. 뽀라스의 연구는 본 연구의 기본적 가정인 원주민 운동이 계급운동에서 정체성운동으로 전환되었다는 인식에 도움을 주었다. 게레로와 오스삐나의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조정정책이 어떻게 원주민 운동에 영향을 끼쳤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이 연구의 핵심은 1982년에 에콰도르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1992년경에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원주민 운동이 발생, 성장했음을 언론에 비친 원주민 운동의 빈도를 계산하여 계량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바레라의

연구는 박사논문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연구는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 연구를 촉발시켰으며, 1990년 원주민 운동을 잘 설명하고 있으나 이후의 원주민 운동의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왜 에콰도르에서 원주민 운동이 1980 · 90년대에 급격히 성장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국민국가형성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장기적 관점에서 원주민 운동의 등장 배경이라는 측면에서 ①식민유산: 인종관리 ②1937년 공동체법 ③1964 · 1973년 농업개혁법 ④경제구조의 변화와 도시화를 살펴보고, 단기적 관점에서는 신자유주의 도입이후 원주민 운동이 출현하게 된 직접적 요인을 내부적 측면에서 ①원주민 가치회복 ②사회적 차이 ③경제정책을, 외부적 측면에서 ①세계화 ②원주민 보호의 국제적 경향 ③미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한다.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장기적 관점은 원주민 운동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필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단기적이고 직접적 계기는 당시의 원주민 운동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편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현지에서 원주민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원주민 조직의 담당자와 원주민 운동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다.[4] 연구대상은 원주민 운동의 전국조직인 CONAIE

4) 에콰도르 현지방문은 2010년 7월4~27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현지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현 파차쿠틱의 산하단체(Escuela de Gobierno y Políticas Públicas de Pachakutik) 대표이면서 2001년 복지부장관을 역임한 루이스(Luís Maldonado)와 파차쿠틱 사무실에서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되었다. 마누엘(Manuel Morocho)은 CONAIE의 법률담당자(Asesor Legal)로서 CONAIE 사무실에서 35분간 인터뷰를 실시했다. 기예르모(Guillermo Churuchumbi)는 CONAIE의 산하단체인 ECUARUNARI의 정치보좌역(Asesor Político)으로 인터뷰는 30분간 실시되었다. ECUARUNARI의 자연자원 지원팀(Equipo de Apoyo en Recursos Naturales)의 비센떼(Vicente Chato)와는 ECUARUNARI 사무실에서 30분간 인터뷰를 했다. 에콰도르의 저명한 학자이자 원주민 운동 연구자인 빠블로(Pablo Dávalos)와 인터뷰는 가톨릭 대학(Universidad Católica)의 그의 연구실에서 40분간 진행되었다. 원주민 운동 관련 현장경험이 풍부한 소장학자인 오르티스(Pablo Ortiz)와는 안디나대학(Universidad Andina Simón Bolívar)에서 1시간 20분 동안 인터뷰를 했다. 오르티스

(Confederación de Nacionalidades Indígenas del Ecuador)와 지역조직(ECUARUNARI) 그리고 원주민 운동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조직인 파차쿠틱(Pachakutik)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을 장기적 관점에서 원주민 운동이 왜 발생했으며, 어떻게 변천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원주민 운동의 등장 배경을 다루고, 제3장에서는 원주민 운동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며, 제4장에서는 신자유주의 이후 원주민 운동의 도약 요인을 분석하고, 제5장은 결론으로 끝맺는다.

II.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등장 배경

1. 식민유산: 인종관리

16세기부터 아메리카는 스페인 사회와 원주민 사회로 구분되면서 새로운

와는 2번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에콰도르에 가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원주민 운동 전문가의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에콰도르의 유명한 학자이자 여론지도층 인사인 중앙대학(Universidad Central) 교수 훌리오(Julio Echeverría), 상호문화성에 대한 글을 많이 쓰는 안디나 대학 교수 캐서린(Catherine Walsh), 그리고 가톨릭대학 교수인 빠블로에게는 인터뷰 질문서를 첨부하여 인터뷰를 요청했다. 캐서린 교수 경우는 에콰도르 현지에서 한 번 더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결국 인터뷰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훌리오 교수 경우는 오르티스 교수가 원주민 운동과 관련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이 있다며 추천해주어서 훌리오 교수 대신에 오르티스교수와 인터뷰를 하게되었다. 원주민 운동 단체 간부와 인터뷰는 현지에서 직접 인터뷰를 신청해서 성사되었다. 인터뷰는 대개의 경우 5~10분 정도 연구주제를 간단히 언급하고 질문서를 미리 알려주고 나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상황에 따라서 순서나 질문내용을 가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질문내용은 ①당신은 현재 에콰도르의 원주민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②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이 발생하게 된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③원주민 운동의 발전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말씀해 주십시오? ④원주민 운동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⑤CONAIE와 빠차쿠틱 사이에 관계는 현재 어떤상태에 있으며, 미래에는 어떨것으로 보십니까? ⑥미래의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⑦원주민 운동에 대해 첨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⑧에콰도르 원주민 운동 연구를 위해 꼭 보아야 하는 자료나 또는 추천해주실 자료는 없는지요? 등이다.

사회관계가 형성되었다. 정복자이자 식민 지배세력인 스페인 귀족들은 사회를 지배했고 정복당했던 피지배세력인 원주민에게는 복종의 기능이 지정되었다. 다른 한편, 정복 · 식민의 정당화를 위한 기독교 확대는 비기독교 인구관리 모델에 기초가 되었다. 비기독교 인구관리의 목표는 창조자를 위해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원주민의 영혼을 얻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관점에서 원주민 통제의 가장 정교한 메커니즘은 교회와 엔코미엔다(Encomienda)였다. 엔코미엔다는 일종의 원주민 관리 방식으로서 통제 메커니즘과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처음에는 종교적 의무에서 시작했던 교회는 지배 장치로 변모했고, 원주민은 사회의 하층을 점하면서 생물학적인 인종적 차이에 기초한 사회구조가 형성되었다. 수세기 동안 인종에 기초한 식민지배는 백인-혼혈인/원주민 사회구조를 제도화했고 동시에 이러한 지배세력의 사회적 · 정치적 이미지를 원주민에게 각인시켰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화국이 시작되면서, 인종에 기초한 지배 메커니즘은 '원주민 문제' 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었다(Sanchez 2008, 195).

1830년 독립과 함께 공화제가 도입되면서 에콰도르에서 '인종관리(Administración Étnica)' 가 중요해졌다. 인종관리는 원래 '인구운용(Administración de Poblaciones)' 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식민시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원주민의 세금 부과 · 처리 및 원주민 통제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운용(Administració)' 이라는 표현보다는 '통제(Control)' 에 보다 부합한다. 따라서 인종관리(Control Étnica)는 '시민적 평등' 에 의해 일상적인 대우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인구집단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19세기적 원주민 관리방식이다. 에콰도르에서 인종관리는 시민권 개념 형성과 관련하여 2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1843-1857년 시기이고, 그 다음 단계는 1857년 이후이다(Guerrero 2000, 11-12; Porras 2005, 84-89).

첫 번째 단계는 1843년 원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여 평등권을 확대하려 했으나, 백인-혼혈인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1830년

이후 에콰도르는 독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센서스에 기록된 원주민의 세금징수를 통해 '공적사실' 로서 원주민을 직접 관리했다. 세금은 국가로 하여금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었으나, 다른 한편, 이 시기의 세금은 세금이 면제된 백인-혼혈인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원주민을 분리하는 장치로서 종족 정체성 과정을 통제하는 분류 범주였다. 이러한 분류는 권력을 갖고 있는 백인-혼혈인 엘리트의 정치기획으로서 그리고 원주민을 억압하는 지배세력으로서 백인-혼혈인 국가를 정당화했다. 에콰도르의 국가정체성은 개념적으로 인종 차별주의 적이었고, 국민국가에서 국민은 백인-혼혈인으로 정의되었으며, 원주민은 배제되었다. 이에 에콰도르에서 원주민과 흑인은 문명의 안티테제였고, 야만이었다. 이처럼 원주민 배제에 기초한 에콰도르의 국가정체성은 유럽모델을 추구했고 에콰도르 국가 밖의 외부사회를 지향했다.

두 번째 단계는 1857년 의회투표 가결로 원주민에게도 실질적 평등권이 아닌 법률적 평등권이 허용되었다. 즉 기존의 원주민에 대한 '지배' 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지배방식' 은 국가제도 중심에서 주변적, 사적 분야로 이동했다. 이에 원주민 통제는 공적인 영역에서라기보다는 사적인 영역으로 인정되었는데, 이것은 아시엔다, 교회, 지방관료 등으로 구성된 지방권력에 원주민 통제 위임을 의미했다. 이러한 지배방식은 1990년대 중반에 해체되면서 원주민 운동이 더욱 발전하게 된다(현지인터뷰, 루이스). 1857년 원주민 세금폐지와 동시에, 원주민은 국가의 헌법, 법률, 원칙, 규제 등에서 사라졌다. 공적영역에서 원주민의 은폐는 에콰도르에서 백인-혼혈인에 기초한 상상적이고 단일적인 정치적 구성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사실은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특징인 다국민국가를 요구하게 했다.

독립 이후에도 원주민은 배제의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 완전한 시민권을 향유하지 못했다. 원주민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주변화 시키지는 않았지만 시민권자 밖에 위치시켰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주민은 시민권자의 조건을 갖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1830년 헌법은 시민권자의 조건을 ① 결혼했거나 22세 이상인 자 ②300페소 정도의 부동산 소유권자, 또는 타인에

종속적이지 않은 직업을 보유한 자 ③문맹자가 아닌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Sanchez 2008, 196). 결국 원주민의 실질적 시민권 획득은 1978년 민주화와 함께 가능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투표자명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일정한 액수를 지불해야만 했는데, 그 액수는 원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도였다. 이후 투표자명부에 등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투표는 시내로 나가서 투표를 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사회통제 장치로서 국가의 미약함으로 인해 에콰도르에서 19세기의 아시엔다는 원주민 문제의 사사화(Privatización)에 기여했다. 이러한 현상은 에콰도르에서 행정적 제도의 발전이 뒤쳐졌기 때문이고, 동시에 에콰도르 영토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식민 시대의 지배 장치로서 엔코미엔다의 직접적 계승자인 아시엔다는 국가부재 또는 약체 속에서 원주민 통제의 사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다. 아시엔다의 지주는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방에서 자원의 분배, 통제, 관리를 책임졌고, 원주민을 경제적 · 정치적 · 사법적 · 문화적 측면에서 완벽하게 통제했다. 아시엔다는 인종지배 구조의 핵심이었다. 이 모델은 2개의 집단을 상상 속에서 구분하면서 서로 다른 위상을 정당화 했다. 즉 국민을 '백인-혼혈인/기타' 로 구분했는데, 이것은 원주민을 구분하는 이항 항이 되었다. 이러한 장벽은 백인-혼혈인 시민권자의 지배를 정당화 하면서 타자에 대한 특정 인종의 우월성으로써 일상적으로 표출되었다. 이처럼 '인종경계(Frontera Étnica)' 는 특정한 방식으로 에콰도르 사회에 인종차별을 생성시켰다. 인종차별 체제는 현재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Sanchez 2008, 198).

2. 1937년 공동체법

원주민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1937년 '공동체법(Ley de Organización y Régimen de las Comunas)' 의 제정이다. 꼬무나스(Comunas)는 1937년 공동체법에 의해 합법화된 원주민 · 농민 조직으로서 원주민이 에

콰도르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보유할 수 있었다. 꼬무나스는 4가지 기능이 있는데 ①원주민의 가치, 양식, 실천을 정당화 한다. ②외부세계에 대해서 원주민 사회를 보호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갖는다. ③원주민 사회 재생산을 위해 근본적이고 필요한 사회적 행위를 실천한다. ④정체성 형성을 위해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일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한다(Guerrero 2003, 130). 꼬무나스와 관련하여 원주민공동체(Comunidad)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꼬무나스는 1937년 정부의 법에 의해 합법화된 원주민 조직이고, 원주민공동체는 의례와 친척 관계에 의해 지탱되는 비공식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주민에게 있어서 꼬무나스는 원주민의 정치적 · 법률적 핵심조직이고, 원주민공동체는 사회적 · 문화적 핵심으로서 원주민의 역사적 가치와 원칙을 발전시키는 비공식적 공간이다(Sanchez-Parga 2007, 28-29).

1937년 공동체법이 지방에 산재한 원주민을 통제하려는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목적에서 제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동법은 안데스 지역에서 전통적인 원주민 · 농민의 토지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동체법은 이후 원주민 운동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왜냐하면 공동체법은 원주민공동체가 제도적으로 국민국가에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국가와 관계 구축을 통해서 원주민 운동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원주민의 공동체 합법화는 원주민 전통사회 모델을 정당화 할 뿐만 아니라, 영토의 합법화, 원주민공동체 구성원의 토지전유, 원주민공동체의 집단소유권 등의 허용을 의미했다. 이처럼 토지와 영토권의 연계는 이후의 토지개혁에 기여했다. 게다가 원주민 고유의 사법권을 적용할 수 있는 미래의 종족영토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종족영토 경험은 이후 원주민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공동체법으로 시작된 '원주민공동체화(Comunalización)' 과정과 원주민공동체 조직 자체의 역동성은 1964년과 1973년 농업개혁 동안 원주민 운동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3. 1964, 1973년 농업개혁법

1950 · 60년대 에콰도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 한편으로 해안 지역의 아시엔다 지주는 봉급에 따라 노동자를 계약을 통해 고용했고, 일정한 토지를 처분하여 고정자본을 유동자본으로 전환했으며, 목축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다른 한편 전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Huasipungo) 내륙 지역에서 증가하면서, 토지에 대한 원주민의 요구가 증가했다.[5] 위기가 첨예화 되면서 원주민 · 농민의 동원이 증가했다. 이에 1964년 농업개혁으로 원주민이 토지를 어느 정도 획득하면서 원주민 동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사회 압력뿐만 아니라, 아시엔다의 근대화도 지속되었다. 1973년 두 번째 농업개혁법이 제정되면서 토지배분에서 제외되고 아시엔다의 봉건적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 원주민 · 농민의 가족들은 원주민 운동을 촉발시켰다. 이것은 에콰도르의 '역사적 전환' 으로서, 최근 200년간 경제체제에서 큰 변화를 의미한다(Guerrero 2003, 20).

1964년 농업개혁법은 에콰도르의 내부적 변화와 함께, 외부적으로는 쿠바 혁명 성공으로 미국이 '진보를 향한 동맹(Alinaza para el Progreso)' 을 추진하면서 당시 군사정부가 농민봉기에 대처하고 세계시장에 에콰도르 농업을 편입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1964년 7월 군사정부에 의한 농업개혁법(Ley de Reforma Agraria y de Colonización)은 주로 국경농업 확대를 통해, 지방에 중산층을 형성시키고 전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타파함으로써 갈등을 축소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으로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인해 1994년까지 기

5) 우아시뿡고(Huasipungo)는 에콰도르 내륙 지역에서 지주와 원주민 · 농민의 봉건적 형태의 생산방식이자 사회관계이다. 아시엔다의 지주가 그의 아시엔다에서 일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농민자신과 그의 가족은 지주의 아시엔다에서 일주일 동안에 4~5일 정도 노동력을 제공해야했다. 심한 지역에서는 일주일 내내 아시엔다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농업개혁으로 가족 노동력 요구금지, 봉급 지급 방식의 노동계약, 채무 · 채권관계의 일년 단위 정산, 아시엔다 소속 농민 자녀의 교육지원 등으로 개선된다. 이밖에도 봉건적 형태의 노동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예를 들면, Concertaje, Precarista, Arrimazgo, Partidarios, Yanapa, Medianería 등이 있다.

능했던 '농업개혁청(Instituto de Reforma Agraria y Colonización: IERAC)' 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1964년 농업개혁법은 중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륙 지역의 지주들은 반대했고, 해안과 내륙 지역의 지주들은 농업개혁청 집행부에 농업노동자와 농민이 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North 2006, 90). 1964년 농업개혁법은 원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전통적인 아시엔다 체제를 변모시켰다. 1964년 농업개혁법에서부터 대규모 농업이익이 다른 분야로 전환되면서 지주의 자본주의적 특징이 강화되었다. 이에 지주들의 계급적 이해는 대규모 토지 소유권에서 제조업, 금융, 무역, 건설 부문으로 이동했다(Moreno 1992, 85).

한편, 1973년 군부에 의해 실현된 농업개혁법(Ley de Reforma Agraria)은 에콰도르의 자원을 보호하면서 외국석유기업과 계약을 성공시켰고, 농업 근대화뿐만 아니라 수입대체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 보건과 교육부문 확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허용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의 다원화와 공공고용의 빠른 확대를 통해 도시 중산층 확대에 기여했고 지주들은 자신의 권력 원천을 보호할 수 있었다(North 2006, 91). 다른 한편, 1973년 농업개혁법은 개인 소유권 하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1994년 농업발전법(Ley de Desarrollo Agrario) 제정 전까지 에콰도르 농업개혁에 영향을 끼쳤다(Sanchez 2008, 201).

원주민 운동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써 농업개혁법은 원주민 재평가를 통해 투쟁적인 원주민 운동을 유발시켰다. 농업개혁법은 원주민·농민에게 다양한 결과를 허용했는데, ①지주의 지배구조에서 원주민이 자유롭게 되면서, 종속과 굴종관계를 타파했다. ②농산물과 노동력을 시장에 결합시키면서, 원주민과 원주민공동체가 토지 소유자로 변모했다. ③이러한 자율의 형태들은 원주민이 국가, 사회, 국가서비스에 보다 통합되는데 기여했고, 특히 교육과 보건 부문에서 기여했다. ④국민국가 사회 내부에 원주민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면서, 원주민 운동과 원주민 조직의 역동성을 촉진시켰다. ⑤지방과 지역에서 원주민의 가시화는

원주민이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로 변모하면서, 지방의 영역을 전국 수준의 영역으로 확대했다(Sanchez-Parga 2007, 62-63).

4. 경제구조의 변화와 도시화

에콰도르 역사에서 1940-1960년 시기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였다. 왜냐하면 에콰도르 역사에서 처음으로 3명의 대통령이 연속적으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나나 위기와 단일작물 수출 위기로 인해 새로운 불안정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3년 군부독재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 시기에 군부세력은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위해 몇몇의 구조개혁을 시도했으나 성과는 저조했다. 이에 군부독재의 인기가 저조하면서 사회의 갈등으로 위기가 증대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원주민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경제구조의 변화와 도시화라는 관점에서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등장 배경은 부가가치가 낮은 경제구조, 경제상황 악화, 원주민의 도시이주 증대, 아시엔다 해체, 인종차별, 빈곤증가 등이 있다. 즉 경제구조의 변화와 도시화가 원주민 운동의 등장배경이 되는 것은 저부가가치 경제구조, 아시엔다의 해체, 경제상황 악화 자체가 원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원주민 운동의 등장배경이 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원주민의 도시로의 강제적 이주현상은 이들로 하여금 도시빈민이 되게 하거나, 비공식 부문의 불안정 고용상태에 처하게 되면서 빈곤증가, 소외, 인종차별 등은 도시에 원주민으로 하여금 원주민 운동의 광범위한 등장배경이 된다.

에콰도르 경제구조는 2001년에도 1차 산업에 치중되었고 2차 산업은 제조업7.5%, 상업6.5%, 건설4.9%, 3차 산업 전체는 25.6%에 이른다. 도시에서 고용분포는 상업과 서비스가 72.9%로서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경계에 위치하는 불안정 고용이라 할 수 있다(García 2007, 86). 또한 생산성이 낮은 농업부문에서 도시로 이동은 1950년 130만 명, 1982년 120만 명으로서, 이것은 에콰도르 도시인구에서 농촌인구가 43% 증가했고, 지방인구의 평균 40%가

도시로 이주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시로 이주한 원주민 · 농민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도시빈민이 되거나 비공식부문에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하게 된다.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로 빈곤층이 증대하면서 불평등도 증대했다. 1954년 지니계수는 0.86이고, 1974년에는 0.85이며, 2000년에는 0.80이었다(García 2006, 74). 1960 · 70년대는 에콰도르에서 '변화'의 시기라 할 수 있다(Guerrero 2003, 18).

식민 시대부터 사회 저변에 있던 인종차별도 원주민 운동 등장 배경으로 작용했다. 에콰도르 사회에서 인종차별은 인종지배의 모든 방식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다[6]. 인종차별은 모든 굴욕을 당하는 원주민을 짓밟고, 착취를 정당화하며, 원주민을 무시하는 일련의 고정관념을 형성시켰다. 이데올로기로서 인종차별은 백인-혼혈인 사회부문의 구성원이면 누구든지 원주민에 대해 우월하다고 느끼게 했고, 어떠한 원주민 보다 더 많은 권리가 있는 것으로 느끼게 했다. 에콰도르 사회에서 인종차별은 원주민 운동 출현으로 인해 인종차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역사적으로 지배대상이었던 원주민이라는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모했고 재평가를 요구했다. 더 나아가서는 오명의 상징이었던 원주민이 변화하는 정체성의 핵심으로 떠올랐다(Sanchez 2008, 205).

6) 구체적인 원주민 인종차별 방식은 Carlos de la Torre(1996), *El Racismo en Ecuador: Experiencia de los Indios de Clase Media*에 잘 나타나 있다. 데 라 또레는 그의 책에서 교육, 공공장소, 여자친구관계 등의 일상적 경험분석을 통해 에콰도르 원주민이 어떻게 차별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에콰도르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도 데 라 또레(Carlos de la Torre 2002)의 *Afroquiteños: Ciudadanía y Racismo*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두 권의 저자인 데 라 또레는 에콰도르 정치를 '색소의 정치(Pigmentocracia)'라고 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종민주주의(Democracia Racial)'를 주장하고 있다.

III.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변천과정: 사회적 · 정치적 행위자의 형성

1.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출현: 1960~1990

1964 · 1973년 농업개혁은 사회를 변화시켰다. 국가의 전국적인 영향력 확대, 농업개혁 관련 법률제정, 아시엔다의 소규모 임대, 기본교육 확대, 정부와 국제기구의 원조와 교육 등은 원주민 통제의 기초를 소멸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원주민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형성을 위한 기회였다. 이것은 이후 에콰도르 공산당 추종세력의 출현과 가톨릭 진보세력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조직의 출현은 조직적, 상징적 자원으로서 원주민 동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동원능력과 기회를 활용하는 역동성이 생성되었고, 이것은 결국 원주민 운동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Barrera 2001, 91).

에콰도르에서 전국적인 수준의 첫 번째 원주민 조직은 에콰도르 공산당 지지에 의해 형성된 '에콰도르 원주민 동맹(Federación Ecuatoriana de Indios: FEI)' 이었다. 당시에 아시엔다 위기는 진보정치 활동가와 원주민을 연결시켰다. 게다가 원주민과 외부와의 연계요인으로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원주민 지도부가 출현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당시 토지투쟁을 위한 원주민 조직출현에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원주민 조직에서 토지투쟁이 원주민 조직들을 연계시킨 요인이었지만, 많은 사례들은 토지투쟁 외에도 지방수준에서 원주민 차별에 대한 투쟁과 원주민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투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지방의 한 원주민 조직(La Federación de Cabildos de Cotacachi)은 술집에서 원주민 지도자를 암살한 혼혈인 출신 정치인을 벌주기 위한 계기에서 창설되었다. 다른 지역(Cacha)에서는 1970년대 말에 원주민 조직의 목표는 토지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직접 통하는 도로를 확보하고, 기초행정단위로 인정받으며, 특정지역의 술집을 위한 축제를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Guerrero 2003, 27).

원주민 운동의 주축인 '에콰도르 원주민 연맹(CONAIE)' 은 1986년 11월

'제1회 에콰도르 원주민 국민회의'에서 36개의 원주민 조직이 통합되면서 창설되었다. 창설목표는 원주민 권리회복과 토지회복이었고, CONAIE 조직 유래는 내륙 지역과 아마존 지역 원주민 조직에 기원을 두고 있다. CONAIE에 가입한 대표적인 원주민 조직은 'ECUARUNARI(Ecuador Renacunapac Richarimuni)'와 '에콰도르 아마존 원주민 연맹(Confederación de Nacionalidades Indígenas de la Amazonia Ecuatoriana: CONFENIAE)'이 있고, 이들 조직의 공통점은 해방철학에 기초한 가톨릭교회의 지지로 창설되었다는 것이다(현지인터뷰, 오르티스). ECUARUNARI는 1972년 내륙 지역에서 창설되었고 대부분의 에콰도르 원주민을 포함하며, CONFENIAE는 1980년에 창설되었고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 조직이다(Sanchez 2008, 207). 아마존과 내륙지역에서 원주민 운동의 차이점은 내륙지역은 토지 · 농업과 관련된 요구라면, 아마존 지역은 그들의 영토를 잘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의 자결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현지인터뷰, 오르티스).

지역적, 전국적 수준에서 원주민 조직 창설은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원주민, 원주민 출신 지식인, 다른 사회조직의 지도자 출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에콰도르에서 원주민 조직은 토지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이중 언어 가능자, 원주민 지식인, 다른 사회조직 지도자 등이 출현하면서 원주민 운동의 지도부가 형성되었다. 다른 한편, 유력한 원주민과 작은 규모의 활동가들은 원주민 지도자의 의식적인 노력을 촉발시켰고, 이러한 노력은 원주민 운동으로 수렴되는 '작은' 과정들이었다. 많은 지방의 원주민 조직들은 CONAIE와 ECUARUNARI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들 조직은 특수하고 번복할 수 없는 지방의 역사로 수렴되었다. 이러한 수렴과정이 없었다면 진보적인 원주민 지식인과 활동가들은 고립되는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주민 운동의 조직과정은 다양한 조직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고유한 지방역사의 수렴으로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원주민 운동의 조직과정은 이중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위로부터 지역에 기초한 조직의 창설이었고, 다른 하나는 밑으로부터의 연맹화라 할 수 있다. 이에 에콰도르

원주민 조직과정은 독립적이고 이질적인 과정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uerrero 2003, 29).

1990년 2월에 개최된 CONAIE 제5회 총회에서 지방 원주민의 위기심화로 인해 에콰도르의 첫 번째 원주민 봉기가 결정되었다. 이에 원주민 봉기는 1990년 5월28일 원주민 보호를 힘쓰는 것으로 알려진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Bartolomé de las Casas)를 상징하는 산토도밍고(Santo Domingo)교회를 점거하면서 발생했다. 교회점거는 80여명에 의해 실행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원주민 봉기는 6월4일부터 시작되었고, 이에 원주민 조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력의 연대를 촉발시켰다. 1990년 6월4일 첫 번째 원주민 봉기는 16개 항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농업에 대한 요구와 다국민국가 선언과 같은 다른 측면의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7] 교회점거는 6월6일부터 정부와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단기적 관점에서 1990년 원주민 봉기는 미시적 수준(지방수준)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원주민을 동원할 수 있었고 거시적 수준(전국수준)에서는 국가에 대한 '저항'을 개념으로 하여 원주민을 동원할 수 있었다(Porras 2005, 263-264). 장기적 관점에서 1990년 원주민 봉기는 에콰도르에서 모든 식민시기와 공화제시기를 반대하는 원주민의 적극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Dávalos 2004, 177).

7) 원주민 운동의 제안은 16개 항목이었고, 그것은 사법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구였다. 16개 항목은 구체적으로 ①에콰도르를 '다국민국가'로 선언할 것 ②원주민에게 토지를 허용하고 그 토지를 합법화 할 것 ③음용수 문제를 해결할 것 ④농업 진흥청(Banco Nacional de Fomento)과 관련된 부채를 말소해줄 것 ⑤필수품가격을 동결할 것 ⑥원주민공동체 안에서 건설되고 있는 공공건설을 우선적으로 완공해 줄 것 ⑦농지와 관련해서 지불해야 하는 토지지불금을 면제해 줄 것 ⑧여름언어학교(Instituto Lingüistico de Verano)를 원주민 지역에서 옮겨 줄 것 ⑨에콰도르 원주민 연맹(CONAIE) 일원에게 수공업 제품과 물품의 자유로운 수입과 수출을 허용해 줄 것 ⑩에콰도르 원주민 연맹 측에서 지정한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통제, 보호, 발전에 힘써 줄 것 ⑪원주민이 사용하는 약용작물의 정부인정과 이에 따른 재정을 지원해 줄 것 ⑫부문위원회(Consejos Seccionales)에 병행적인 기구의 창설 조항을 폐지시켜줄 것 ⑬원주민을 위해 재정기금을 즉시 지원해 줄 것 ⑭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 ⑮어린이 권리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 ?원주민 자치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정책을 취해 줄 것 등이다(Hidalgo 2006, 272).

2.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성장: 1990~1996

에콰도르에서 1990년 여름에 발생한 첫 번째 원주민 봉기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원주민이 봉기에 참여하면서, 동원규모가 그들이 예상했던 수치를 훨씬 넘었기 때문이다. 봉기가 발생했던 당일까지 얼마의 원주민이 참여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어떻게 됐을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주민 운동을 시기구분 할 때, 1990년 6월 봉기 이전이 아니라 '이후'를 원주민 운동의 '성장' 시기로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1990년 봉기 '이전'은 원주민 운동 출현 시기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6월 봉기 이후에 원주민 운동이 조직 · 동원 능력 측면에서 매우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주민 운동의 성장 시기는 1986년 CONAIE가 창설되던 때부터가 아니라, 1990년 6월 봉기 이후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이다.

원주민 운동의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1990년, 1992-1993, 1999-2000년 이 3개 시기에 가장 많은 원주민이 동원되었다. 특히 원주민 운동이 언론에 많이 노출된 시기인 1992-1993 동안은 급격한 구조조정 시기와 일치한다. 이후 원주민 운동의 다양한 활동은 정확하게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원주민 동원의 결정적 시기는 전기, 통신, 에너지 등 공적영역의 노동조합에 지지를 받는 '사회운동협력체(Coordinadora de Movimientos Sociales: CMS)'가 창설되던 1995년이었다. 원주민 운동과 관련하여 1995년에 중요했던 것은 '농민사회보험(Seguro Social Campesino)' 민영화 반대와 농업개혁의 공식적인 종결에 대한 반대였다. 이 2개의 문제는 원주민의 상당한 저항과 논쟁을 유발시킨 요인이었다(Guerrero 2003, 46).

이처럼 1990년대 중반에 원주민 운동에 영향을 끼친 일련의 변화가 발생했다. 한편으로 1995년부터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모든 경제지표는 재앙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위기는 경제위기와 함께 시작되었다.[8)]

8) 1995년 부통령인 알베르또 다익(Alberto Dahik)은 의회에 의해 탄핵되었고 코스타

여기에 한 개의 요인을 더 첨가해야 하는데, 그것은 원주민 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요구였다. 토지투쟁은 1990년 원주민 봉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이었고 1994년 봉기에도 중요했다. 그러나 이후 갑작스럽게 원주민 운동에서 토지문제 중요성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문제가 포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의 변화를 의미했다. 그리고 이후 원주민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계급으로서 '농민적' 성격의 운동에서 '종족적' 성격의 운동으로 원주민 운동이 변모한 것이다. 원주민 운동에서 이러한 성격의 변화는 에콰도르 사회가 더 많은 변화와 문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95년 8월 아마존 원주민 조직의 여러 지도자는 원주민의 가치와 세계관에 따른 원주민 고유의 정치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소식은 CONAIE 지도부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고유의 원주민 조직이 생기게 되면 원주민 세력이 파편화되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이러한 논의는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 내부에서 1996년에 창설되는 파차쿠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아마존 지역 원주민 조직 제안에 대해 내륙 지역 원주민 조직은 '다국민운동연맹(Movimiento de Unidad Plurinacional)'을 제안했다. 이리하여 '참여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써 파차쿠틱이 1996년에 창설되었다. 파차쿠틱은 개방적 조직으로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치행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99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CONAIE는 TV방송진행자인 프레디(Freddy Ehlers)를 지지하는 '신국가운동(Movimiento Nuevo País)'과 동맹을 맺게 된다. 이리하여 CONAIE에 지지를 받는 정치조직인 파차쿠틱은 '파차쿠틱 다국민운동-신국가(Movimiento de Unidad Plurinacional Pachakutik-Nuevo País)'라는 긴 이름을 갖게 되었다 (Barrera 2001, 207-208).

파차쿠틱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원주민 운동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서

리카로 망명을 떠났다. 1996년 대통령으로 압달라 부까람(Abdalá Bucaram)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제도적 변화와 정치 불안정 시기가 시작되었다. 2명의 대통령은 임기 이전에 탄핵되었고, 원주민 운동은 이 2개의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

창설되었다. 그러나 파차쿠틱 내부에서는 이견이 분분했다. 아마존 지역 출신은 항상 정치에 있어서 실용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고, 내륙 지역 출신은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보유했는데, 이것은 당시 복잡한 정치상황에서 파차쿠틱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이후 파차쿠틱은 1996년 선거에서 자신의 대통령 후보자를 추천했고, 8명의 의원, 75명의 기초단체장, 12명의 광역단체장을 당선시켰다(Porras 2005, 102).

3.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갈등: 1996~2010

1990년부터 원주민 운동은 에콰도르에서 명백한 조직능력을 보여주었다. 전국적 수준에서 조직역량을 갖고 있는 원주민 운동은 상당한 정치행위자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원주민 운동이 낮은 선거대표성을 갖는 것과는 대비되었다. 그러나 원주민 운동의 정치세력인 파차쿠틱은 지방정부와 전국선거에서 일정한 위상을 획득했다. 원주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1998년 헌법에서 다국민국가를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1999-2000년 시기에도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쳤다(Montúfar 2001, 15).

이처럼 원주민 운동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발전과정 중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CONAIE와 파차쿠틱 사이에 내부적인 갈등과 정부와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일례로서 1996년 11월에 개최된 CONAIE 총회에서 분열과 갈등이 나타났다. 이 총회에서는 아마존 지역 원주민과 내륙 지역 원주민의 갈등이 드러났고, 다른 한편 당시 대통령 후보자인 압달라 부까람을 지지하는 원주민과 지지하지 않는 원주민 사이에 분열이 나타났다. 이에 CONAIE가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성원 사이의 명백한 의견 차이로 인해 총회가 중단되었다(Barrera 2001, 222). 1999년 8월 파차쿠틱 창설 3년 만에 제1회 전국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파차쿠틱은 정치적 목표를 재확인했지만, 당시 정부에(Jamil Mahuad) 반대를 표명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표명되었다. 이처럼 파차쿠틱은 구성원들 사이에 항상 긴장이 존재했다. 왜냐하면, 일부는 권력에 반대 ·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

에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었다(Sanchez 2008, 215). 게다가 2001년 파차쿠틱에 다양한 조직이 통합되면서 분열이 더욱 조장 되었다.

1999년부터 에콰도르 사회는 위기의 심연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첫 번째 사건은 1999년 3월에 은행예금동결과 연료가격이 인상되었고 이에 대한 반대시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윽고 2000년 1월에 원주민 운동과 군인이 합세하면서 당시 대통령은 실각하게 되었다. 이때 군인이었던 구티에레스(Lucio Gutiérrez)가 에콰도르 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되었고 2002년 1월에 원주민 운동의 지원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4개월 만에 사법부에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와 지속적인 부패로 정당성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원주민 운동 조직발전 과정에서 가장 갈등적인 시기는 2003년이었는데, 그것은 구티에레스 정부에 원주민 운동 조직인 파차쿠틱이 참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이처럼 파차쿠틱이 선거조직과 정당으로 기능함으로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게다가 파차쿠틱이 여당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권력의 일부가 되었고, 이것은 파차쿠틱의 많은 구성원들에게 갈등요인이 되었다(Sanchez 2008, 222-2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원주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 요인은 '밑에서 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실제로 원주민 운동의 동원은 지도부의 정치적 이해에 보다 부합했으나 원주민 운동 구성원의 내부적 역동성과 논리는 중요성이 갈수록 떨어졌다. 또한 원주민 운동 구성원은 사회적 참여에 의한 원주민 재평가에 보다 관심을 갖고 있다면, 원주민 운동 지도부는 시위를 보다 선호하면서 원주민 운동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다(Sanchez-Parga 2007, 125).

IV. 신자유주의 이후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도약 요인

1. 내부적 요인

1) 원주민 가치 회복

500년 동안 원주민은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서 에콰도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굴욕적인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에 대한 원주민 운동에 기초가 되었다(현지인터뷰, 루이스, 기예르모). 식민지배의 500년 역사 속에서 그리고 180년 이상의 공화제에서 원주민의 권리는 계속해서 무시되었다. 새로운 방식의 굴종, 착취, 억압은 원주민에게 불의한 삶의 조건을 강요하면서, 체계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재생산했다. 불의한 삶의 조건이란 원주민의 자연자원을 침탈하고, 그들의 문화를 파괴하며, 원주민의 삶을 재앙으로 이끄는 외채 등으로 하여금 제국주의적 지배와 굴종을 강제했다.

원주민 봉기의 다른 원인은 원주민 토지와 영토의 회복과 방어이며, 또한 원주민 정체성 회복을 위한 것이다. 다국적 기업은 정부의 허가와 양도로 자연자원을 비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토지는 몇 명의 경제세력에게 집중되면서, 토지와 영토의 권리에 대한 원주민 투쟁을 야만적으로 제압했다. 원주민의 문화적 가치는 무시되었고, 고유의 문화적 표현은 억압되었으며, 타인의 문화를 강요했다(Almeida et al. 1992, 18-20).

2) 사회적 차이

원주민과 백인-혼혈인 사회의 차별뿐만 아니라, 원주민 사이의 차이도 원주민 봉기의 요인이 되었다. 원주민 내부의 차별과정은 정치적으로 의도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 원주민 동원은 대농장의 지주에 의해 근대화의 명확한 개방이 없었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고, 다른 한편으로 지주에 의해 근대화가 명확하게 추진된 지역에서는 원주민 운동이 활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차별화 과정에서 지주에 의해 근대화가 완연히 시도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원주민의 빈곤이 상당히 증가했고 사회갈등도 증가했다.

원주민 입장에서 내부적 차이의 하나는 경제활동 형태로서 이것도 원주민 운동 발생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원주민의 수공업 분야의 노동은 총고용에 주요한 기여를 했는데, 신발과 의류 경우에 수공업 공장은 제조업 공장보다 많이 생산했고, 총고용의 80% 이상을 흡수했다(Moreno 1992, 31-32). 따라서 농업에 종사한 원주민의 상황이 수공업에 종사한 원주민보다 열악했다. 다른 한편, 사회적 차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의미에서 에콰도르는 해안, 내륙, 아마존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지역적 상황은 원주민 사회의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측면에서 복잡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라는 관점에서 유일한 하나의 관점으로 원주민 상황은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Moreno 1992, 48-50).

3) 경제정책

경제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 도입은 첫째, 제조품과 농산물의 교환조건을 더욱 악화시켰다. 석유 붐과 자본주의 시장 확대로 국내시장과 농민 · 원주민 경제 사이에 역동성은 원주민 농업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제조품 가격이 농산물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원주민의 생산과 소비 유형을 변모시켰다. 둘째, 비록 농업개혁으로 토지재분배 효과가 있었지만, 가족의 증가를 상쇄할 만큼 토지개혁이 충분하지 않았다. 가난한 원주민의 생존전략은 도시나 대농장으로 계절적 이주를 통한 수입으로 보완하는 것이었다. 셋째, 재정 위기 시부터 원주민 지역에 대한 공적 재정지출 수준이 감소했다(Barrera 2001, 130-131).

이처럼 원주민 운동의 정치참여는 신자유주의 강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신자유주의는 개념적으로 권위주의적, 강요적, 폭력적 의지로서 표현된다. 실제로 자유주의 사상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에 존재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갈등을 발생시키는 유일 보편성(Universalidad)의 의지가 밑에 깔려있다. 자유주의 사상 내부

에는 차이를 인정할 공간은 없어 보인다. 이에 신자유주의 사상은 이 사상 내부에 큰 충돌이 갈수록 심해지는 시기에 원주민 운동을 촉발시켰다(Dávalos 2005, 18).

2. 외부적 요인

1) 세계화

1990년대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실질 사회주의 몰락과 같은 시기에 발생했다. 이처럼 패러다임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행위자와 정치적 주체가 출현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전 지구적 측면에서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권력 강화를 의미했다. 세계는 양극체제에서 단극체제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정당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시장 자유화, 자본 자유화, 금융 탈규제 등이었다(Dávalos 2001, 27-28).

1990년에 첫 번째 원주민 봉기가 에콰도르에서 발생했고 이후 1994년 멕시코에서 원주민 봉기가 발생했다. 시기적으로는 우연일 수 있지만, 원주민 운동이 발생했던 당시 상황은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노동계급의 전략이 실패했음을 보여주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미국의 헤게모니가 공고화되었다. 이에 원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상황은 심각했는데, 그것은 원주민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세계화 하에서 치아파스와 에콰도르에서 원주민 봉기는 이들이 노예적 관계를 강요받고 있다는 증거이다(Dávalos 2005, 28; Dávalos 2001, 29).

2) 원주민 보호의 국제적 경향

국제노동기구(OIT)는 에콰도르 원주민 봉기의 외부적 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쳤다(현지인터뷰, 마누엘). 국제노동기구 협약 169호는 독립국가의 원주민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은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원주민 문제를 국가의 내부문제로 인식하도록 했고, 영토유지, 사회

적 · 문화적 · 정치적 · 법률적 조직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했으며, 자율권에 있어서 원주민 고유의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 1992, 1997년 원주민 운동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169호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파차쿠틱은 1998년 국제노동기구 협약 169호를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에콰도르에서도 원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Dávalos 2004, 189).

3) 미국의 대외정책

얼마 전까지 에콰도르는 미국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관심 영역 밖에 있었다. 에콰도르의 협소한 시장 규모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했고, 사회주의권 붕괴로 쿠바혁명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국제경찰 역할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에 미국의 정책은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에콰도르는 미국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콜롬비아에서 게릴라와 마약세력 갈등의 확대로 미국 군사정책이 에콰도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국의 '콜롬비아 계획' 은 콜롬비아 갈등이 가장 가까운 에콰도르 국경지역에까지 확대되면서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Porras 2005, 130).

V. 결 론

식민시대에 에콰도르의 원주민은 인종주의, 교회, 엔코미엔다 등에 의해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었다. 독립이후 1857년 백인-혼혈인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원주민은 은폐되었다. 이에 원주민의 지배방식은 공적영역에서 주변적, 사적영역으로 이동했다. 이에 아시엔다, 교회, 지방 관료에 의한 지방권력이 국가로부터 원주민 통제를 위임받았다. 그러나 1970 · 80년대 아시엔다 해체가 시작되었고, 국가기능이 신자유주의 도입에 따라 축소되었으며, 교회도 원주민 운동을 고양했다. 이후 1990년대 중반에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면서 1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지방권력체제가 붕괴되었다. 다른 한편, 원

주민은 아시엔다 해체로 봉건적 생산방식에서는 벗어났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증가했다. 교회와 진보세력이 원주민을 교육시키고 조직하면서 원주민 운동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원주민 운동은 1978년 민주화와 함께 원주민도 투표권이 허용되면서 특히 내륙지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86년 CONAIE가 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행위자로서 원주민 운동인 CONAIE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던 이듬해에 정치행위자로서 파차쿠틱이 창설될 수 있었다.

에콰도르에서 원주민 운동의 성과는 첫째, 라틴아메리카에서 동원능력이 가장 높은 단체로서 내륙, 해안,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 운동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에콰도르 원주민 조직의 동원능력은 압달라 부까람과 하밀 마후앗 2명의 대통령을 해임시켰다. 둘째, 정부와 협상에서 원주민 운동은 교육, 토지, 용수 등 구체적인 성과와 함께 헌법에서 다국민국가를 성취했다. 셋째, 다양한 선거에 참여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넷째, 담론수준에서 그리고 실질적 행동에서 원주민 조직의 동원능력은 에콰도르 사회에서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에콰도르의 국가와 정치에서 원주민의 가시성을 획득했다.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은 원주민의 인종적 · 문화적 · 사회적 · 경제적 배제를 정치화 할 수 있었다(Hoetmer 2008, 123-124).

결론적으로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장기적 관점에서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 변천사를 살펴보고 원주민 운동의 원인과 과정을 고찰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종국적으로 오늘날 에콰도르 정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한계도 존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국민국가(Estado Plurinacional)'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Estado Plurinacional을 다국민국가, 다민족국가, 다문화국가, 다종족국가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적절한 번역어(개념)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다. 후속연구로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지역에 기초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에콰도르 현지에서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을 연구하러 왔다고 했을

때,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 관련자와 전문가들은 '어떤 지역'의 원주민 운동을 연구하러 왔느냐고 제일 먼저 물어 보았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해안, 내륙, 아마존 지역을 구분하여 자원(석유, 광물자원, 목재 등), 종족, 역사, 지리, 수출품, 국내외적 연결망 등의 측면에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기현(2007),「원주민 인권과 종족성의 정치: 볼리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0, No. 1, pp. 105-133.

김기현(2010),「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은 종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가?」,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3, No. 2, pp. 203-240.

김은중(2008),「권력의 식민성과 볼리비아 원주민 사회운동」, 이베로아메리카, Vol. 19, No.1, pp. 29-57.

김은중(2010),『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그린비.

Almeida, Ileana et al.(1992), *Indios*, Quito: ABYA YALA.

Ayala Mora, Enrique(1988), *Nueva Historia del Ecuador, Vol. 13: Ensayos Generales III: Nación, Estado y Sistema Político*, Quito: Editorial Grijalbo Ecuatoriana.

Barrera, Augusto et al.(2004), *Entre la Utopía y el Desencanto. Pachakutik en el Gobierno de Gutiérrez*, Quito: Planeta.

Barrera, Augusto(2001), *Accion Colectiva y Crisis Política: El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o en la Década de los Noventa*, Ecuador: ABYA YALA.

Barrera G., Augusto(2001), "Nada Sólo para los Indios. A Propósito del Último Levantamiento Indígena," *Revista Ciencias Sociales*, FLACSO, No. 10, Abril, pp. 39-47.

Burno, Felipe(2000), "Reflexiones a Propósito del 21 de Enero. Cuando Todos Deciden Saltar al Vacío,"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9 Abril, pp. 4-14.

Chiriboga, Manuel(2001), "El Levantamiento Indígena Ecuatoriana de 2001: Una Interpretación,"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10, Abril,

pp. 28-33.

Dávalos, Pablo(2005), *Pueblos Indígenas, Estado y Democracia*. Buenos Aires: CLACSO.

Dávalos, Pablo(2004), "Movimiento Indígena, Democracia, Estado y Plurinacionalidad en Ecuador," *Revista Venezolana de Economía y Ciencias Sociales*, Vol. 10. No. 1, Enero-Abril, pp. 175-202.

Dávalos, Pablo(2001), *Digamos lo que Somos, antes que Nos Den Diciendo lo que no Somos: Una Minga de Ideas*, Quito: ABYA YALA.

De la Torre, Carlos(2002), "Movimientos Étnicos y Cultura Política en Ecuador,"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15, Diciembre, pp. 62-74.

De la Torre, Carlos(2002), *Afroquiteños: Ciudadanía y Racismo*, Quito: Centro Andino de Acción Popular.

De la Torre, Carlos(1996), *El Racismo en Ecuador: Expericencia de los Indios de Clase Media*, Quito: Centro Andino de Acción Popular.

Garcia P., Francisco(2007), "¿Un Nuevo Modelo Rural en Ecuador? Cambios y Permanencias en los Espacios Rurales en la Era de la Globalización," *Revista Ciencias Sociales*, FLACSO, No. 29, Septiembre, pp. 77-93.

Garcia, Francisco(2006), "El Sector Agrario del Ecuador: Incertidumbres ante la Globalización,"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24, Enero, pp. 71-88.

GrupoSantillana(2006), *Historia de Ecuador*, Quito: Imprenta Mariscal.

Guerrero, Andres(2000), *Etnicidades*, Ecuador: FLACSO.

Guererro, Andres(1991), *La Semántica de la Dominación: El Concertaje de Indios*, Quito: Ediciones Libri Mundi.

Guerrero, Fernando y Pablo Ospina Peralta(2003), *El Poder de la Comunidad. Ajuste Estructural y Movimiento Indígena en los Andes Ecuatorianos*, Buenos Aires: CLACSO.

Gutiérrez S. Francisco(2004), "Democracia, Economía y Conflicto en el Ecuador," Análisis Político,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No. 50, Enero-Abril, pp. 73-85.

Hidalgo, Juan(2006), "Cosmovisión y Participación Política de los Indígenas en

el Ecuador," in Amalia Inés Geraiges de Lemos et al. *America Latina: Cidade, Campo e Turismo*, San Pablo: CLACSO, pp. 263-279.

Hoetmer, Raphael(2008), "Resistiendo al Capitalismo Neoliberal en Abya Yala: El Caso del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o," in Rodrigo Montoy Rojas(ed.), *Voces de la Tierra*, Lima: Universidad Nacional Mayor de San Marcos, pp. 105-147.

Lacuisse, Marie-Esther(2007), "Los Movimientos Políticos Locales en el Escenario Electoral,"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27, Enero, pp. 37-45.

León, Mauricio(2003), "Etnicidad y Exclusión en Ecuador: Una Mirada a partir del Censo de Población de 2001,"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7, Septiembre, pp. 116-132.

Moreno Y., Segundo(1992), *El Levantamiento Indígena del Inti Rami de 1990*, Quito: ABYA YALA.

North, Liisa(2006), "¿Militares y Estado en Ecuador: Construcción Militar y Desmantelamiento Civil?,"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26, Septiembre, pp. 85-95.

Ospina, Pablo(2006), *En las Fisuras del Poder: Movimiento Indígena, Cambio Social y Gobiernos Locales*, Quito: Instituto de Estudios Ecuatorianos.

Pachano, Simón(2005), "Ecuador: Cuando la Inestabilidad Se Vuelve Estable,"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23, Septiembre, pp. 37-44.

Pazmiño, Catalina(2005), "La Fragil Legitimidad del Principe Democrático,"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23, Septimebre, pp. 27-36.

Porras Velasco, Angelica X.(2005), *Tiempos de Indios: La Construcción de la Identidad Política Colectiva del Movimiento Indio Ecuatoriano*, Quito: ABYA YALA.

Rosero, Fernando(1990), *Levantamiento Indígena: Tierra y Precios*, Quito: Centro de Estudios y Difusión Social(CEDIS).

Sanchez, Francisco(2008), *¿Democracia no Lograda o Democracia Mallograda?: Un Análisis del Sistema Político del Ecuador: 1979-2002*, Quito: FLACSO.

Sanchez L., Francisco(2006), "Uso y Abuso de la Reforma en Ecuador:

Reflexiones Generales con Énfasis en lo Electoal,"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FLACSO, No. 25, Mayo, pp. 9-19.

Sanchez-Parga, José(2007), *El Movimiento Indígena Ecuatoriana: La Larga Ruta de la Comunidad al Partido*, Quito: Centro Andino de Acción Popular.

Walsh, Catherine(2008), "Interculturalidad, Pluriculturalidad y Decolonialidad: Las Insurgencias Política-Epistémico de Refundar el Estado," *Tabla Rosa*, Bogotá, No. 9, Julio-Diciembre, pp. 131-152.

김 달 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mundokdk@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0년 8월 29일
심사완료일: 2010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 2010년 10월 25일